

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와 우리 반도체 기업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7.16. 코리아 타임즈 「US seeks share of Korean chipmakers' 'excess profits': source」, 7.17. 아주경제 「“미국 정부, 삼성·하이닉스 이익 분배 요구”...초과이익 먹잇감 됐다」 제하 등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하며,
 - “지난달 릭 슈와이처 미 무역대표부(USTR) 부대표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미측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 부대표간 면담을 포함하여, 산업부는 USTR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구진경 (044-203-5650)
		담당자	서기관	김태우 (044-203-5651)